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 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사도행전 2:1-11 | 제2독서 | 코린도1:12:3-7, 12-13 | 복음 | 요한 20:19-23

◎말씀 < 성령 강림 대축일 - '성령의 활동' >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한 뒤,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리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세상을 향해 복음선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복음선포의 주인은 성령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속에는 성령께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1코린 12,13).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1코린 12,3).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주십니다. “(로마8, 15-16)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의 인도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로마 8, 14).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8, 9)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변화로 나아갈까요? 제자들의 변화에 주목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의 수난, 십자가의 고통을 보고 모두 주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복음에

서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두 문을 잠가놓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화를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성령은 곧 용서의 영입니다. 용서의 영은 우리를 일치로 이끕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용서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봉사자를 뽑을 때, 그 식별 기준은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6,5) 우리도 이미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려, 성령의 열매를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성령강림 대축일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성령으로부터 달아버리는 것은 자기자신의 이득을 위한 이기심, 율법학자들의 완고한 율법주의, 예수님 가르침에 대한 태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입니다. “ ”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갈라 5,22) 이 아홉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각자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2티모 1,6)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6월 11일(화)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	오후 7시 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1,100.00 \$ 609.00
6월 12일(수)	연중 제10주간 수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270.00 \$ 115.00
6월 13일(목)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오후 7시 30분	사회복지 성모의밤	\$ 15.00 \$ 399.00
6월 14일(금)	복되신 동정마리아 방문축일	오후 7시 30분	기타수입 2차헌금	\$ 127.00 \$ 153.00
6월 15일(토)	연중 제10주간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합 계	\$ 2,788.00
6월 16일(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8명 성인: 80명
교무금 봉헌자	김용문(1-5월)장형철. 권영일(5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멕시코 ‘텔레비사’와의 단독 인터뷰 답변 내용(5.28.2019)

미국과 멕시코 장벽문제

‘장벽’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세운 장벽에 갇히고 말것입니다. 그러나 ‘다리’를 세우는 사람은 상대방이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친구가 되며 악수를 합니다. 대화가 있습니다.

젊은이에 대해

“뿌리를 잃어버릴 위험에 직면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과 이야기하고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길 권고합니다. 뿌리에서 잘려나간 나무는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황께선 젊은이들이 뿌리와 대화하고 뿌리에서 문화를 공급받으라며 용기를 북돋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라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성 폭력 문제

‘사회학적 설명’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여성은 여전히 부차적인 자리에 머문다고 지적하셨으며, 이는 여성이 종종 노예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황께선 최근 로마에 있는 성매매 여성 쉼터를 방문했다며 성매매 여성 사례를 들었습니다. 교황께선 여성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여성 없는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언론과의 관계

“저는 언론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저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황께선 가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내심을 보여준 기자들에게 감사했다. “몇몇 질문들은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황은 칠레의 성학대 의혹에 관한 질문을 예로 들었다. “그것은 칠레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에서 큰 존경심을 갖고 질문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해당 주제에 관해 자신이 충분히 알지 못했음을 깨닫도록 도와줬다고 밝혔다. 로마로 돌아온 교황은

“생각하고, 기도했으며, 조언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을 밝혀내도록 바티칸 순시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도움이 됐습니다.”

이민자와 난민문제

이 사안은 교황이 현대세계 시나리오에서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환대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며, ‘동행하고 증진하고 통합하는’ 독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교종은 모든 국가가 이 절차를 따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멀리 갔다는 점을 숙고해보라고 위정자들에게 청하면서 대화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동성애에 관해

교황은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가정이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셨습니다. 더불어 동성애자가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 행위를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번 텔레비사와의 인터뷰에서 교황은 가톨릭교리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히려 교황은 해당 맥락에서 벗어난 언급에 빠져드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리에 관해서는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밝히셨습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 카타리나/백정심. 막달레나 전기례. 베레나/김나미. 로사/김옥륜. 세실리아 추소연. 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 수산나 서향자. 글라라/김초지. 마리아/황순이. 마리아 최이주. 베아따/이규청. 제노비아/엠모니카 신용경. 그레고리오/배미성. 오틀리아/박모란. 글라라 원헤리나. 헬레나/고공자. 벨라베타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박판기.세실리아의 영혼	국부자.마리아	생	김일주.안나의 영육간 건강	아빌라회
연	이태영.마리요셉 신부님의 영혼	박문교.글라라	생	(생일) 전율리안나, 손엘리사벳	셋별
연	이정자.발비나의 영혼	이영숙.데레사	생	전율리안나의 영육간 건강	김정애.헬레나
연	이정자.발비나의 영혼	진엘리사			

간
간
간
지

◎지금 그렇게 하시오◎

어떤 심리학 교수가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죽는다고 가정하자.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은가.”
모두 대답했다 ‘누구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자 교수는 다시 말했다. “그러면 지금 모두 그렇게 하시오...!”

강은교 클라라.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8월 25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공동체 소식(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리노공소 미사
일시:16일(일)오후3시.성당에서 출발
참여단체:사회복지부.공소미사에 함께해주세요
- 2.모임안내
사회복지부:9일(일)교중미사후.루가방
꼬미시움:16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사 목 회:23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연 령 회:23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 3.여성 제13차 꾸르실료(북미주 서중부)
일시:6월20일(목)-23일(일) 3박4일
문의:김동현.이대원
장소:Oakland Holy Redeemer Center
- 4.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28일(금)오후7시30분.성당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 5.본당신부님 영명축일(6월29일)
기념미사:30일(일)오전11시.성당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6.본당방문을 환영합니다.
일시:16일(일)교중미사 중.
김상진.아우스딩신부님(안동교구)
- 7.교구 2차헌금(선교사업후원)
일시:16일(일) 모든미사
목적:Missionary Cooperative Appeal(세계선교)
소개:Comboni전교수녀회 수녀님
- 8.정혜도서관 오픈일자 안내(6월)
일시:16일(일).23일(일)11시미사후
- 9.주일학교 기금마련 본당골프대회 안내
일시:10월6일(일)오후2시.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장현철 행사부장(916-293-2499)

- 10.65번가 St.Mary's묘소 현지답사 안내
일시:22일(토)오전10시30분.성당에서 출발
23일(일)오후 1시30분.성당에서 출발
신청서는 연령회장님께 직접 받으시기바랍니다
한국Section 구성에 참여해주신 신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문의:고원석.바로로
- 11.젊은이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일시:7월5일(금)오후4시30분-7일(일)오후2시.
장소:꽃동네(37885 Wood chuck Rd.Temecula)
참가비:\$160(한국어/영어 강의로 나누어 진행)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참조해주세요
- 12.교구 원 캠페인 모금을 마감합니다(6월말까지)
부족금액모금을 위해 신자들의 협조바래요(6천불)
지난주;송돈희(\$200) 감사합니다.
- 13.감사합니다.
야외미사를 위해 수고하신 행사부와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도네이션:최응철(가루비누50개)송돈희(\$300)

<주일/한글학교 소식>

- 북가주청소년여름캠프 기금마련 세차 안내
일시:30일(일)9:00am~1:00pm 많은 참여바랍니다
북가주청소년여름캠프(HKMCC) 등록 안내
기간:7.30(화)~8.3(토) 대상:8학년~12학년
장소:Heavenly Hills Christian Camp
(25611 Lyons Dam Rd Twain Harte CA95383)
등록:인터넷에서 신청 문의:김형일.주일학교장
<http://nckcdirectors.wixsite.com/summercamp2019>

- 식사봉사(이번주);사목위원 보조:송돈희.임정남
식사봉사(다음주);성가대 보조:전비아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1,2구역
- 예비신자 교리반:매주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화답송



주님 당신숨을 보내시 - 이 온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전례봉사	성령강림대축일(6월9일)	삼위일체대축일(6월16일)	성체성혈대축일(6월23일)	연중 제13주일(6월30일)
해설	김은선.제노베파	김선영.플로라	임상일.프란치스코	김은영.폴리나
제1독서	이대원.베드로	윤여훈.로마노	김선식.플라비노	임현재.요한
제2독서	이주연.크리스티나	남소영.세실리아	정미정.루시아	임규민.엘리사벳
복사	최준우.장현철	김규철.윤여훈	허호영.장현철	김규철.장현철
봉헌/기도/청소	1-2구역	1-2구역	1-2구역	1-2구역
헌금위원	전비아.유정임.나송희	임상일.안혜숙.박병수	고원석.윤재경.안강순	안병훈.정의주.박수옥